

'전북 교육, 미래를 상상하라'

'전북교육 상상포럼' 개최... 민주적 전북교육공동체 만들기·새로운 교육 실천 다짐

'2022 전북교육 상상포럼'이 17일 전주비전대 비전컨벤션홀에서 90여 명의 교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전북교육 미래를 상상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 포럼은 전북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대표 주종일, 최현초), 전북실천교육교사 모임(대표 황정원, 지사초) 전북총은 교사운동(대표 최광용, 전주교대부설초)에서 공동 주최하고, 풀뿌리교육연구회 등 14개 교육연구회가 함께했다.

전북교육상상포럼은 2022 지방자치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교육 현장의 참여와 의

견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을 평가해보고, 전북교육의 미래를 전망해 전북교육정책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1부 전북교육 성찰 마당에서는 전북교육 10년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에서 전북의 교원들은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확대(29.9%), 혁신학교 운영과 학교혁신 확산(25.0%) 등을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더디게 변화가 이뤄진 정책으로는 학교 업무 경감 및 교육과정 중심 학교 변화(14.3%), 학교구성원의 인권 신장(14.3%),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치(11.4%) 등을 꼽았다.

포럼 관계자는 "학교구성원인 교

사, 학생,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며, "이는 혁신학교 운동 과정에서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실천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와 교육, 수업 혁신 분야의 성과가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업무 경감, 교육 행정 및 인사, 지자체와의 협력 등 지원 시스템이 더딘 측면이 있고, 교권 신장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전북교육의 미래를 상상하는 다양한 제안이 이뤄졌다.

토론 과정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목표로 민주적이고 행복한 교육

공동체 만들기, 도민과 함께 새로운 교육 실천,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육 과정과 수업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주종일 대표(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는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2022년을 맞아 전북교육정책을 준비하는 첫 자리였다"며 "이후 전북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다양한 교육 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와 연대해 2차, 3차 포럼을 열어 교원과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전북교육정책을 도교육청과 교육감 후보, 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17일 전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감과 함께하는 부패방지 및 청렴 감사문화 확산 회의'가 열렸다.

"청렴, 끊임없는 자기경계를 통해 구축되는 것"

교육감과 함께하는 부패방지 청렴 감사문화 확산 회의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공정하고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층 강당에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감과 함께하는 부패방지 및 청렴 감사문화 확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감과 감사담당 공무원의 소통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 감사문화를 확산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상호 협력체계 확립으로 교육현장과 함께 성장하는 자체 감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 및 자리아용 금지 등을 철저히 지켰다.

이날 회의는 △김승환 교육감 특강 △2021년 하반기 자체감사 방향 △물품·용역 계약 업무의 이해 △시설 계약 업무의 이해 순으로 이뤄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감사담당공무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청렴한 풍토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경계와 집단경계를 통해 구축되

는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이 이 나라 청렴의 대명사가 되길 바라는 것은 전북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담당공무원들은 감사라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듣기 어렵고, 어쩔 수 없이 감정노동을 하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내가 손을 대면 반드시 뭔가 나온다"는 그릇된 의식을 버리고 자기경계와 자기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 이후에는 감사담당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미술 공연이 펼쳐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정은성 기자

캡스톤디자인 온라인으로 만난다

전북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오늘 개최

전북대학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가 18일 중앙도서관 1층 LINC+신학협력라운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의 전공 지식과 창의력을 결합해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형 교과목으로, 학생과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활동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시상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해는 총 19개 작품이 출품돼 온라인으로 심사가 진행됐고 여

기에서 선정된 우수작은 18일 시상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한 학기동안 학생들의 탐구 열정이 담긴 캡스톤디자인 작품은 온라인 전시관(<https://lincplus.jtnu.ac.kr/contest>)을 통해 선보인다.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시대적 현실에 맞춰 경진대회도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을 고도화해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며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학생들이 자질없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유기석 실장, 대학발전기금 기탁

다문화가정 도박문제 해소 지원체계 마련 '호응'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센터장 이희정)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도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호응을 얻고 있다.

그간 다방면에서 도박문제 예방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온 센터는 도박문제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 청소년과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 전북거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센터는 협약 이후 지난 6월 7일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이주여성 부모 교육, 그리고 교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유기석 실장(학술정보운영실)이 대학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실장은 1984년 전주대에서 근무를 시작해 도서관 정보관리 및 정보자료계장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도서관 학술정보운영실장 직을 수행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도서관 교육 시스템의 질을 높였다.

그는 37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 퇴임 전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다. 그는 스타센터 도서관 외부에 학생들의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설치하는 데 사 용해 달라져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유기석 실장은 "37년 동안 학생들



과 함께하며, 내 자식처럼 돌보고 학습을 지원했다"며, "퇴임 전에 학생들을 위한 선물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새로운 길터에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진로 선택 고민? 상담 통해 해답 얻길'

전북대, 오늘까지 고교생 초청 진로진학박람회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17일 진로 선택을 고민하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박람회를 열었다.

18일까지 이틀 간 진수당과 전대학술문화관에서 이어지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북지역 1,500여 명의 고교생이 참여한다. 대학에선 81개 학과가 참여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전공 상담과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한 입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를 별도로 마련, 입학사정관이 직접 참여해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와 정시에 관한 입시상담도 이뤄진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초청 대상 고교를 전북지역으로 제한하고, 참여 학생도 1개 고교당 200명 이내로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상현 입학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참여인원을 제한하는 등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어렵게 준비한 만큼 참가한 고교생들이 전공을 알아보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